학과평가 3월말 발표 … 계열별 순위 공개도
정원감축 중 차등감축분 1.6%에 반영

대학 자체 학과평가 현황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현재 실시 중인 'Organization & Program Review(O&P)' 결과가 이르면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O&P 평가 결과는 학과와 대학원의 입학정원, 자율예산, 교원 채용 인원 조정 등에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정부지원 대학특성화사업 선정 당시 제시했던 4%의 정원 감축인원 중 차등감축분 1.6% 대상 학과 선정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O&P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조문'에 근거한 대학 자체평가로 지난 2009년부터 실시돼왔다. 그동안 O&P는 학과별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지표의 가중치도 학과별로 조정이 가능한 일종의 '인센티브' 중심의 평가였다.

하지만 학과별 비교대상 대학의 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계열 내 학과의 정량지표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등 '비교-경쟁요소'가 강화됐다. 단적으로 그동안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캠퍼스별 전체 학과 대상 우수학과만 포상하는 방식과 달리 캠퍼스 구분 없이 계열별 순위를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은 학부 76개 학과, 대학원은 전문대학원 6개, 특수대학원 9개다. 평가는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계열별로 나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실시한다. 학부의 경우 인문·사회·체육계열, 자연·공학계열, 의·약·간호계열, 예술계열 등 총 4개로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량평가의 경우, 각 그룹에 따라 부여된 중점지표와 통일된 자율지표, 만족도로 세분화된다. 학과는 각각 중점지표 80점, 자율지표 10점, 만족도 10점 등 100점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10점, 110점 만점이다. 대학원은 각각 중점지표 70점, 자율지표 10점, 만족도 10점 등 90점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10점을 더해 합계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지표와 배점은 각 계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른 계열의 취업률 지표는 배점 10점인 것과 달리, 예술계열은 배점이 5점으로 책정됐다. 반대로 대학원 진학률은 예술계열은 10점, 다른 계열은 5점으로 배정됐다.

정성평가는 부총장, 행정부서장, 계열별 교수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사회진출 지원, 학과 특성화 추진 실적, 소통, 정책과제 실행 등을 평가한다. 이는 각 학과와 대학원, 행정부서에서 정성보고서를 제출받아 발표평가와 함께 실시된다.

미래정책원 평가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서로 배우는 상승분위기를 만들어 재정악화로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건전한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과자체평가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안)
평가그룹	인문사회체육, 자연과학A, 자연과학B, 의약간호, 예술	인문사회체육, 자연공학, 의약간호, 예술
평가대학 시기	직전학년도 2학기 ~ 당해년도 1학기	직전학년도 1학기 ~ 2학기 (정보공시와 일치)
평가대상 기간	1개 년도	2개 년도 (2015학년도 평가부터 3개 년도)
평가 방법 및 배점	• 학과 : 정량평가(50), 만족도(20), 정성평가(30) • 대학원 : 정량평가(50), 만족도(20), 정성평가(30) • 행정부서 : 만족도(30), 정성평가(70) • 단과대학행정실 : 미평가	• 학과 : 중점지표(80), 자율지표(10), 만족도(10), 정성평가(10) • 대학원 : 중점지표(70), 자율지표(10), 만족도(10), 정성평가(10) • 행정부서 : 그룹별로 중점지표, 자율지표, 만족도, 정성평가로 평가 ※ 팀단위 아닌 처단위 평가 • 단과대학행정실 : 학과 정량지표(80), 정성평가(20)
목표설정	학과별 자체 목표 설정	학과별 비교대상 대학의 성과값을 목표로 설정 (비교 불가능 지표는 계열 내 T값으로 상대평가)
정량지표	과별 정량지표의 가중치 조정 가능 학과의 노력으로 개선이 어려운 지표 포함	계열 내 정량지표별 가중치는 동일 학과의 노력으로 개선 어려운 지표 삭제 (교수당 학생수, 장학금지급율, 외국인교원비율 등)
결과발표	순위 미공개 캠퍼스별 전체 학과 대상 우수학과만 포상	캠퍼스 구분 없이 계열별 순위 공개

▶1면에서 이어짐

남 원장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학점인플레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과의 소통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성적평가제도는 학점표준화제도로서 B+이상의 성적을 40% 이내에서만 부여하면 되는 단일등급 기준이다. 이에 비해 타 대학의 성적평가제도는 통상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1명 이상 수강강좌에 대해 A등급을 35% 이내, B등급을 35% 이내, C등급 이하는 30%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일반강좌에 대해 A+와 A를 0~35%, B+와 B를 0~70%, 그밖에 C+, C, D+, D, F를 30% 이상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가 지난해 말 각 단과대학에 '성적평가협조요청'을 보낸 것을 두고 총학생회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됐던 바 있어〈대학주보 1582호(2014.12.08.)〉 조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일방적인 교육부 구조개혁 정책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정책은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된 4개 항목의 경우 대학의 관련 정책이 적절하지 못한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구성원의 협의나 개선 의지가 없고서는 나아질 수 없는 것들이다. 대학의 제도적인 개선안 못지않게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향후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우리대학이 장기 발전의 계기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정원감축과 같은 페널티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인지 그 결과는 지금부터 마련하는 대안들에 달려있을 것이다.

Newsmake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이정이 (아동가족학 2012) 회장

"일방적인 구조개혁, 학생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를 비롯해 한양대, 동국대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좋은 학생회 만들기 모임'은 지난 달부터 대학구조개혁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은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대학의 학문, 특히 인문·예술계열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어떤 점에서 문제를 낳고 있는지 총학 이정이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지원재정사업과 연계된 이상 평가에서 자유로운 대학은 없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입학정원 축소는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다. 결국 대학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 일반의 시선이다. 이 회장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엔 부정적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구조개혁은 일방적이며, 학생들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며 지난 학기 대학본부에서 성적평균을 B0 또는 이하로 맞추라는 일방적인 성적평가협조요청을 보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당시 대학본부의 갑작스러운 학점조정 요구 메일은 학생 사회의 큰 반발을 샀다.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 탓이었다. 결국 대학본부 스스로 그 요구를 철회했다. (성적분포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발표에 의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전임교원 강의비율이나 취업률, 강의규모 등도 대학구조개혁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평가방식 자체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어 음대의 경우 악기마다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취업률 산출방식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길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인문·예체능계열이 위축되고 이·공계열 중심으로 대학의 일괄적인 정원조정을 우려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사업'을 최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골자는 여전히 산업계 수요가 적은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축소하고 이공계열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학특성화사업보다 배정예산이 3배에서 4배 더 클 것으로 예정돼있다.

이 회장은 대학구조개혁에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연계된 상황에서 대학들이 목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정부지원재정사업과 연계된 이상 평가에서 자유로운 대학은 없다"며 "교육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인데 이번 평가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잣대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캠 총학은 일방적인 학사제도 변경을 막기 위해 '학사제도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회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대학들과 대안 마련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4일 타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구조개혁 대안 마련 토론회는 한양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